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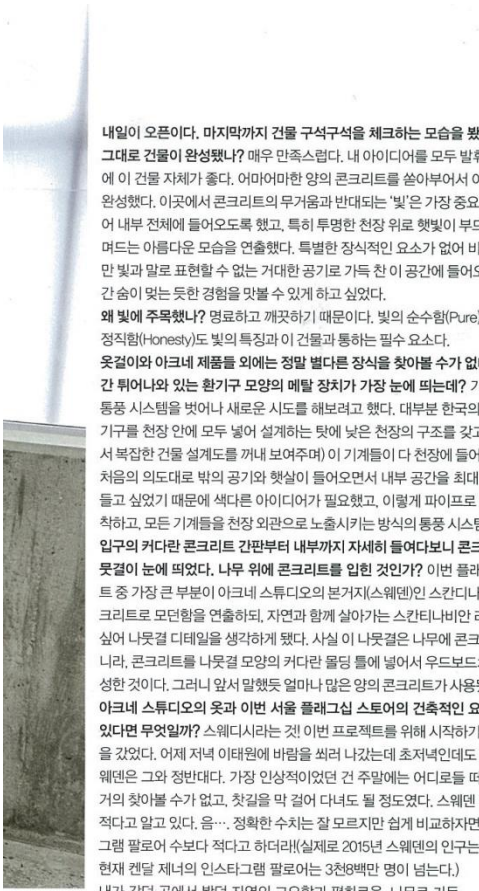


SOPHIE, THE PURE ARCHITECT

지난 9월 19일 아르네 스튜디오는 건축가 소피 히크스(Sophie Hicks)와 함께한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를 공개했다. 아르네 스튜디오의 뿌리인 스웨덴 스카리프스타일을 절제의 미학과 우아함으로 담아낸 그녀가 들려주는 솔직한 건축 이야기.

저 마다 화려한 모습의 부티크가 줄지어 서 있는 청담동 골목 한쪽을 따라 들어가면 지난 9월 중순 오픈한 아르네 스튜디오의 첫 번째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를 마주하게 된다. 기존에 자리했던 건물은 허물고 아르네 스튜디오만을 위한 새 건물을 지어 올린 건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완벽함을 향한 브랜드의 고집이 바탕이 됐다. 굳이 더기 없는 투명하고도 목적인 조명 박스 같은 아르네 스튜디오 플래그십 스토어는 건축가 소피 히크스가 완성했다. 소피 히크스의 이름이나 얼 굴이 생소하다면 2014 F/W 시즌 랑방 캠페인에 등장한 한 가족 사진을 떠올려 보라. 그녀의 두 딸인 모넬 자메 에디 캠페와 올림피아 캠페, 그리고 어머니인 조 안과 함께 화색 피코트를 입고 캠페인에 등장한 장면이 바로 소피 히크스다. 건축가로 활동하기 전 그녀는 <태블러>와 영국 <보그>의 패션 에디터를 거쳐 아제딘 알리아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며 굼직한 패션 신에서 활동했다. 20대 후반, 10여 년간 일해온 패션계를 떠나 건축가로 변신한 소피 히크스는 파리의 요지 아마모토와 여러 나라의 폴 스미스, 클로에 플래그십 스토어 등을 통해 패션 부티크에 정통한 건축가로 자리매김했다. 유독 부드러운 영국 악센트로 인사를 건네는 그녀. 역사나 그녀의 시그니처인 단정하고 미니시한 차림이었다. 꾸밈없는 여유로운 모습이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냉철하고 명료했다. 마지막 세 땅에 한창인 스토어 내부를 꼼꼼히 둘러본 소피 히크스는 포토포레이 사진 찍는 내내도 옷매무새를 완벽하게 다듬으려 애썼고, 자신이 입고 있는 박시한 아르네 스튜디오 셔츠가 마음에 걸린다며 한쪽 옷걸이에 걸려 있던 마스터피스 스웨터를 꺼내 들어 허리에 묶고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절제되고 우아한 아르네 스튜디오 스토어의 외부와 회색 콘크리트, 메탈릭 디테일로 악센트를 준 건물 내부는 소피 히크스의 모습과도 참으로 닮아 있었다.

사진 Kim Heekyoung/Arne Studios(2번)



“특별한 장식적인 요소가 없어도 빛나는 듯 심플하지만 빛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공기가 가득 찬 이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합’하고 약간의 숨이 멎는 듯한 경험을 맛볼 수 있게 하고 싶었다.”



카드런 조명 박스가 연신되는 청담동 아르네 스튜디오 플래그십 스토어 외관

내일이 오픈이다. 마지막까지 건물 구석구석을 체크하는 모습을 봤는데, 처음에 상상한 그대로 건물이 완성됐다? 매우 만족스럽다. 내 아이디어를 모두 발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가 좋다. 어마어마한 양의 콘크리트를 쏟아부어서 이렇게 하나의 건물로 완성했다. 이곳에서 콘크리트의 무거움과 반대되는 ‘빛’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빛이 스토어 내부 전체에 들어오도록 했고, 특히 투명한 천장 위로 햇빛이 부드럽고도 희미하게 스며드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했다. 특별한 장식적인 요소가 없어 보여 있는 듯 심플하지만 빛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공기가 가득 찬 이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합’하고 약간의 숨이 멎는 듯한 경험을 맛볼 수 있게 하고 싶었다.

왜 빛에 주목했나? 명료하고 깨끗하기 때문이다. 빛의 순수함(Pure)은 너무 매력적이다. 정직함(Honesty)도 빛의 특징과 이 건물과 통하는 필수 요소다.

옷걸이와 아르네 제품을 외에는 정말 별다른 장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양쪽 벽에 중간중간 튀어나와 있는 환기구 모양의 메탈 장치가 가장 눈에 띄는데? 기존의 에어컨과 같은 통풍 시스템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했다. 대부분의 한국의 건물들이 통풍 관련 기구를 천장 안에 모두 넣어 설계하는 탓에 낮은 천장의 구조를 짓고 있지 않다. (가방에서 복잡한 한울 설계도를 꺼내 보여주며) 이 기계들이 다 천장에 들어 있다고 상상해보라! 처음의 의도대로 밖의 공기와 햇살이 들어오면서 내부 공간을 최대한 넓고 순수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색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했고, 이렇게 파이프로 콘크리트 벽 안에 장착하고, 모든 기계들을 천장 외관으로 노출시키는 방식의 통풍 시스템을 택했다.

입구의 커다란 콘크리트 간판부터 내부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니 콘크리트에 입체적인 나뭇결이 눈에 띄었다. 나무 위에 콘크리트를 입힌 것인가? 이번 플래그십 스토어의 컨셉트 중 가장 큰 부분이 아르네 스튜디오의 본거지(스웨덴)인 스칸디나비아 지방이었다. 콘크리트로 모던함을 연출하되,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스칸디나비아인 라이프스타일을 담고 싶어 나뭇결 디테일을 생각하게 됐다. 사실 이 나뭇결은 나무에 콘크리트를 입힌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를 나뭇결 모양의 커다란 물딩 틀에 넣어서 우드보드를 보일 수 있게 완성한 것이다. 그러니 앞서 말했듯 얼마나 많은 양의 콘크리트가 사용됐는지 상상해보라! **아르네 스튜디오의 옷과 이번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의 건축적 요소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스웨디시라는 것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시작하기 전 스웨덴으로 여행을 갔었다. 어제 저녁 이태원에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초저녁인데도 정말 변화하더라. 스웨덴은 그와 정반대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주말에는 어디로든 떠났지 집에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찾길들 막 걸어 다녀도 될 정도였다. 스웨덴 인구 수 자체가 매우 적다고 알고 있다. 음...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지만 쉽게 비교하자면 캔달 제너의 인스타그램 팔로어 수보다 적다고 하더라(실제로 2015년 스웨덴의 인구는 약 9백70만 명이며, 현재 캔달 제너의 인스타그램 팔로어는 3천8백만 명이 넘는다.) 내가 갔던 곳에서 봤던 자연의 고요함과 평화로움, 나무로 가득 했던 길, 순수했던 느낌을 스토어에 가져다 놓으려 했다. 여행 후 요니 요한손에게 내가 스웨덴에서 보고, 듣고 느낀 건축적인 영감을 모아 아이폰으로 찍은 필약한 영상을 보여주었다.

매 프로젝트 때마다 그렇게 영상 작업으로 영감을 스케치하나요? 매년 조금씩 다르다. 요지 아마모토 스토어의 경우엔 책을 만들었다. 물론 패션 에디터 경험을 통해 요지의 디자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좀 더 건축적인 의견을 걸었던 아이디어가 담긴 책을 한 권을 가져다오니 매우 만족스러웠던 게 기억난다.

당신의 패션 경력이 건축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각각 다른 브랜드를 이해하고 옷을 이해하는 점에 있어서 패션계

서의 백그라운드든 패션 스토어 건축에 큰 도움을 준다. 브랜드 측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물론이고 디자인을 눈보이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필수적인 부분들을 경험을 통해 잘 이해하고 구현해낼 수 있으니 말이다.

오랫동안 패션 에디터로서 일해오다 건축가가 되기로 한 계기가 궁금하다. 열일곱 살부터 스물여섯까지 에디터로 일했다. 패션과 트렌드는 좋고 도는 것이라지만, 기존의 것을 재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무언가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래서 과감하게 건축학을 공부하고자 다짐했고 지금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다. 당시 함께 일했던 그레이스코딩턴이며, <태블러>에서 내 어시스턴트로 일했던 후배들은 지금까지도 패션계에서 일하고 있다. 그들 말고도 헤어나 메이크업 스타프 등 나와 젊은 시절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 중 계속 활동하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서너 번 서울을 방문했고, 이번에도 오프닝 이벤트를 위해 며칠 동안 서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건축적으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한 것이 있다면? 건축보다도 어제 호림아트센터에 들려오는 도자기 전시(10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선과 면의 만남, 편방>전을 봤는데 너무 좋았다. (가방 속에서 아이폰을 꺼내 들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한 장의 백자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 봐라, 이 아름다운 선과 깨끗함에 감동받았다. 평소에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아트 작품들을 접하는 편인데, 이번에 본 예술적인 한국의 도자기를 역시 내게 큰 영감을 줬다. 그리고 노랑진수신사장이 정말 재미있더라! 내가 기본 세계 어떤 수산 시장도 그렇게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먹고 싶은 상상한 해산물들을 바로 그리고, 취향에 따라 주문해 요리해 먹을 수 있구나! 이걸 정말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오늘 저녁에 딸 애들과 올림피아 서울에 도착할 예정인데, 꼭 같이 다시 한번 가볼 생각이야.

어떤 요리에 당신의 건축을 비유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고 먹는 음식과 내가 짓는 건축물은 비슷하다고는 생각된다. 집에선 딸방의 싱싱한 채소들을 따서 먹는다. (휴대폰의 사진을 보여주며) 집에 이렇게 나무도 많고, 직접 꽃, 채소, 과일을 키운다. 평소 가볍게 먹는 식습관을 가졌는데, 이번 아르네 스튜디오 플래그십의 경우 자연을 담고자 했으니 그런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나 목적인 스타일에 있어서 그와 정반대의 요소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일종의 음식과 건축의 콘트라스트랄까?

그래서 스토어 1층 외부에 작은 정원을 만든 건가? 아마 생소한 꽃밭일 텐데, 실제로 스칸디나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을 가져다 심었다. 워낙 환경도 다르고 가꾸는 게 힘들어서 며칠 전 심어 놓은 꽃들이 금세 시들어 있어 다시 심었다. 앞으로 신경 써서 가꾸어야 할 거다. 스웨덴의 정원들은 프랑스와도 다르고, 한국이나 일본 정원같이 정돈되고 규칙적이지 않더라. 인위적으로 나무나 관목, 덩굴들이 저마다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는 듯한 모습이 정말 좋았고, 그 요소를 작게나마 이번 건축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건축가로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물론 집이 좋다. (아르네 스튜디오 스토어의 2층으로 올라오는 원형 계단을 가리키며) 우리 집에도 저런 콘크리트 계단이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곳 계단은 구름다리처럼 계단 사이 사이를 뚫어놓아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공간감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거다. **■ 에디터/박지연**

콘크리트와 메탈릭 오브제, 천장과 벽으로 들어오는 빛이 인상적인 청담동 아르네 스튜디오 플래그십 스토어 내부

Magazine: Harper's Bazaar

Issue: November

Editor: Ji-yeon Baek

SOPHIE THE PURE ARCHITECT

On the 19th of September Acne Studios unveiled its Seoul store that is designed by architect Sophie Hicks. She tells us a story about how she brought Swedish life style in a modest and elegance way into the store.

Acne Studios Seoul store is located in a hidden place right center of Cheongdam area where all the luxurious boutiques are stood up in line. It was a long journey to make this happen. This total rebuilt building only for Acne Studios represents brand's philosophy. It is based on their way to keep their identity and their obsession with perfection. This half transparent and massive light box looking store is designed by architect Sophie Hicks. If you are not familiar with her name please recall the family picture of Lanvin's 2014FW season's campaign. She was the one who appeared in the picture wearing light grey fur coat with her two daughters, model Eddie Campbell and Olympia Campbell, and her mother Joan. Before started her career as an architect she had different experiences like as a fashion editor at Tatler and British Vogue and as a stylist for Azzedine Alaia, being in the center of fashion field. At her late 20s, she left fashion field and decided to become an architect and now she is the architect who designed stores for Yohji Yamamoto, Paul Smith, Chole. When we first met her in Seoul she was dressed up in tidy and mannish outfit. Her attitude was all natural and relaxed but her eyes tell that she is someone who has strong insight. Cheongdam store's restrained and elegant looking from the exterior and the concrete inside look very alike with Sophie herself.

-Tomorrow is opening of the store. I saw you checking on every single part in the store. Is the store come out how you imagined at the beginning?

I am very satisfied with the result. I put all my idea into this store so I just love this building. We used tons of concrete to build up this building. In this place 'the light'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that is opposite to heaviness of concrete. I try to put the sunlight passing through the building. Especially the ceiling that is made of half transparent material brings soft sunlight into the store. It seems empty simple as there are not any additional ornament materials. I want people to experience a breathtaking moment when they enter the store where is filled with massive air.

-Why did you focus on the light?

The light is clear and pure. Honesty is also the necessary element that has connection

with the light and the building.

-I found the metal elements that are stick to each side of walls interesting.

I tried to install different air conditioning equipment. Buildings in Korea mostly have all the equipment on the ceiling inside. As I planned from beginning I wanted to put the air and the light coming from the outside and keep the interior as spacy as possible. So I install pipes in the concrete walls bring out all the equipment on the top of the building outside.

-I found imprints of rough timber on the concrete inside of the store. Is it actual wood that is covered with concrete?

A major part of the store concept is Scandinavia where Acne Studios was actually born. I wanted to create modern atmosphere and at the same time the Scandinavian life style that is oriented to the nature. That is how I came up with this idea. It is not wood that is covered with concrete. We put concrete in a mold that has imprint of rough timber. So can you imagine how much of concrete were used for this store?

-Are there any common things between Acne studios's clothes and the architect elements?

Both are Swedish! I travelled to Sweden to get ideas for this project. Last night I went out in Itaewon area where there is full of people. It is totally opposite to Sweden. In Sweden, especially during weekend we could hardly see people on the street. I could actually walk on the road without any problem. I know the number of population in Sweden is really few, not sure the exact number though. Someone said it is less than the number of Kendall Jenner's instargram followers! (Actual number of population in Sweden is nine 970 million and the number of Kendall Jenner's instargram followers is more than 3,800 million) I wanted to bring the calm and peaceful enviroment, the forest full of trees, pure feeling that I have experienced in Sweden. After this trip I made a short film of inspiration that I got from this trip.

-Do you always make an inspiration film for every project?

It is case by case. For Yohji Yamamoto store I made a book. It was kind of an idea book that had architectural elements in it. I remember that he was really satisfied with the book.

-Does your work experience in fashion field helps on architect?

In terms of understanding differences between brands and clothes, my fashion back ground definitely helps to design a fashion store. It is easier for me to communicate with brand and to find out the essential element to give highlight on clothes.

-How did you end up being an architect after having many years of experience as a fashion editor?

I worked as fashion editor from the age of 17 till 26. Fashion and trends are come and go. I wanted to create something on my own rather than just reinterpret an existing

thing. So I daringly decided to study architect then here I am enjoying my life doing what I like to do. My ex co-worker Grace Coddington and some of my assistants at Tatler are still working in fashion field. Also hair and make-up staffs who I used to work with are still working and I think that is amazing.

-You have already been to Seoul several times and now you are staying over for few days for the store opening. Did you find any architect interesting?

Besides architect, I went to see an exhibition of ceramic art at Horim art centre and there I was moved by Korean white porcelain that has graceful line and purity. This exhibition gave me a lot of inspiration. And also I found fish market at Noryanjin fascinating. It is unique because there is no other fish market where we can eat right at the place. My two daughters Eddie and Olympia will get to Korea tonight so I will definitely bring them to the market.

-If you compare your structure to food, what it would be?

Food that I enjoy to eat is pretty apposite to the building that I plan. I enjoy fresh vegetable that I picked from my garden. I enjoy gardening at home. I wanted to bring nature elements into the store so in this case it is similar. But overall the concrete and heavy style is totally opposite. so I would say it is some kind of contrast between food and architect?

-This is why you made a small garden in front of the store?

It must be unfamiliar flower. Those are Scandinavian plant that we actually brought from Sweden. Swedish garden is not like Japanese or Korean garden that is all in order and well organized. It looks more like artificial wild garden that has trees and bushes everywhere.

So I wanted to bit of this element into the building.

-Where is your favorite place as an architect?

It is absolutely my home. At my place there is also similar spiral stairs that are in the stores. But the difference is that the stairs in the store has this space between every step to give feeling that you are floating in the air.